



7일 제주시 광지해수욕장에서 제주 토종말들이 백사장을 누비는 이색적인 해변경주 '2019 광지 해변을 드르馬!'가 열린다. 이날 현장에서는 베테랑이 불가능한 대신 응모권을 배부해 경품을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사진=렛츠런파크 제주 제공

# 제주 경주마들 광지해변을 드르馬



제주 핫플레이스 (48) 해변경마

말의 고장이라는 제주에서도 보기 드문 제주 토종 말들의 이색적인 해변경주가 진행된다. 백호 임제(1549~1587)가 제주 유람 중 목격하고 나서 감탄해 하지않았던 제주 기병의 모래밭 마상소싸이는 아니어도 주말 구경거리로 소개할 만하다.

렛츠런파크 제주는 제주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말의 고장 제주의 대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변경주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지해수욕장에서 백사장을 달리는 해변경주 '2019 광지 해변을 드르馬!'를 개최한다.

이번 광지 해수욕장 해변경주에서는 제주마 경주마 8두가 해변을 따라 200m를 질주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광지해수욕장 백사장에는 간이 주로가 설치되고, 렛츠런파크 제주 경주에 활동하고 있는 현역 경주마와 기수들이 참가해 실제 경주와 비슷한 시속 60km의 경주를 펼칠 예정이다. 경주마 해변경주는 2회 진행되며, 출전상금은 총 2160만원이다.

이번 해변 경주는 실제 경마와는 달리 베테랑이 불가능하다. 대신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는

1600장의 응모권을 배부하고, 적당한 관람객에게는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우선 오후 4시와 5시 두 번에 걸쳐 경주마 8두가 해변을 따라 질주하는 200m 레이스를 관람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승마 맞히기 응모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렛츠런파크 제주 토종말 해변경주 7일 광지해수욕장 실제 경주 방불 베테랑 대신 응모권 경품 증정 행사 지역특산 농산물·먹거리로 교환**

우승마를 맞히는 행사를 통해 공기청정기 20대와 총 800만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먹거리 교환권을 나눠준다. 지역 농산물·먹거리 교환권은 광지부녀회·청년회에서 운영하는 지역농산물 홍보부스에서 지역특산 농산물·먹거리로 교환할 수 있다. 이색 이벤트로 가족이 각각 말과 기수 역할을

맡아 20m의 모래밭을 입고 뛰는 가족(연인)달리기 시합을 마련해 참가하는 관람객에게도 지역 농산물 교환권을 증정한다.

제주마 해변 레이스 외에 자치경찰단 기마대, 유소년 승마단 해변경주, 미니호스의 이색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유소년승마단 해변경주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구성된 기수들이 한라마 6두와 함께 출전한다.

또한 관람객들이 기수 체험을 해보는 '나도 기수(Jockey)다!!', 나만의 행운의 편지 만들기, '행사 다음날 or 1년 후' 발송되는 여행 추억 엽서 남기기, 초상화 그려주기, 대형 편지 포토존 사진 찍고 미니 타투 받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경주에 사용했던 편지를 리폼하고, 마사회 직원의 재능기부로 럭키캐처도 제작해 편지 곁이와 함께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기부할 계획이다.

윤각현 렛츠런파크 제주 본부장은 "해변경주는 관광객을 유인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가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한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다"며 "광지리와 함께하는 해변경주가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 제주바다와 문학 (11) 르 클레지오 소설 '폭풍우'



하늘에서 바라본 우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르 클레지오의 '폭풍우'는 이 섬에서 생계를 잇는 해녀들에게 바친 소설이다.

### "바닷속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해녀들"

'우도의 해녀들에게' 헌정 30년 만에 섬 찾은 이방인 죽음 대신 삶을 택한 여정

그가 30년 만에 다시 찾은 섬은 예상대로 낯설었다. 언덕과 해변, 섬 동쪽에 무너져 내린 분화구 같은 것들이 간신히 옛 기억을 깨웠다. 스무 살 남짓 되어 보였던 조개 따는 해녀들도 나이를 먹었다. 잠수복도 없이 부력을 견디기 위해 허리춤에 돌맹이를 달고 일본 군이 쓰던 물안경으로 잠수하던 그들은 이제 검정 고무로 만든 잠수복을 입고 있다.

우리말로 번역 출간된 르 클레지오의 소설 '폭풍우' (2017)는 바다로 사라진 여인과의 추억이 깃든 우도에서 생을 마감하려는 필립 키요가 주인공이다. 소설에는 우도란 지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작품집 맨 앞장에 적힌 '제주 우도의 해녀들에게'란 헌사에서 그 섬이 창작 배경이란 걸 일러준다.

소설 속 필립 키요는 베트남 전쟁 중군기자였고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죄로 6년을 복역한다. 감옥에서 나온 그에게 입양아 출신 메리 송은 구원이자 희망이었고 둘은 우도에 동지를 튼다. 우도를 택한 이유는 정적이 감도는 먼 곳, 바람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 바닷속이 있는 곳이었다. "바다에 가득 찬 관광객들은 도로나 오솔길을 따라 더러운 물처럼 줄지어 흐른다." "세계에 몇 남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제주를 칭했던 작가의 말은 지금도 유효할까.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휴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